

■ 그림 여행



**마르세이유 수호 성모 대성당**  
(Notre-Dame-de-la-Garde, Marseilles c. 1905)

폴 시냐크 (Paul Signac 1863 --1935)  
캔버스에 유채 88.9 cm x 116.2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아주 오래전에 가 보았던 프랑스 항구도시 마르세이유의 풍경이다. 조르주 쇠라와 함께 신인상주의 대표 화가였던 폴 시냐크의 작품이다. 섞지 않은 물감의 고유한 색채를 화면 위에 점점이 찍어 그 색채들이 그림을 보는 사람의 눈에서 혼합되어 순수한 화면을 구성하도록 시도했던 이들은 점묘파라고 불린다. 선두주자였던 쇠라가 너무 일찍 죽은 탓에 머리가 명석하고 신념이 강했던 폴 시냐크가 그들의 점묘법, 혹은 분할주의 기법 이론을 완성하고 실천해서 후대에 알렸다.

폴 시냐크는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 남부 항구도시 상 트로페로 이주해 평생 항해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점묘법으로 그린 바다나 항구의 풍경화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그림은 바다 쪽에서 바라 본 마르세이유 수호 성모 대성당의 정경인데 아마도 자신의 배 위에서 그렸을 것으로 짐작한다.

마르세이유는 언덕이 많아서 하루 종일 걸으면 다리가 아팠었다. 친구들과 함께 걸다가 쉬면서 와인을 마시고, 해가 지면 수평선 너머 석양을 바라보았다. 새벽에는 푸른 안개가 자욱할 때도 있었고 그런 때 항구를 내려다보면 정말로 이 그림처럼 푸르스름한 풍경이 바닷물 위에 떠 있었다. 점점이 찍은 색깔들이 금새라도 흩어져 사라질 것처럼 아련한 화면을 보면 그때의 마르세이유 바닷가 풍경이 그 위에 겹쳐 떠 오른다.

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고 프랑스식 파이 가예뜨까지 만들어서 마르세이유 인근 자연 보호 지대 까마르그(Camargue)로 소풍을 갔던 일, 그 해안가에 서서 바라 본 지중해의 부드러운 물결, 저녁에 어시장에 내려가 고등어와 새우를 사 와서 함께 구워 먹었던 맛있는 식사, 떠나던 날 아침 새벽 어시장에서 사 온 생굴을 듬뿍 넣고 미역국을 끓여서 많이 먹으라고 떠먹여주던 정 많은 화가 친구, 그리고 택시를 타고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 본 마르세이유의 항구 풍경까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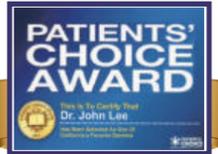
또 마르세이유에 가 볼 기회가 다시 올까? 그때 그 언덕들, 그 바다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맞아 줄까? 점점이 모이고 흩어지는 푸른 바다 풍경 속에 향수 어린 마음만 가득하다.

《김동백》

www.fullertonsmile.com

**A' DENTISTRY**

나에게  
**꼭 맞는 틀니**가  
있는 곳!



- 틀니전문
- 틀니수리 1-2시간안에 가능
- 자체 랩보유
- 임플란트 틀니



**John S. Lee, D.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S.  
Tuff Dental School, D.M.D.

**714.449.1686**

536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2



**확실한 선택과 후회없는 결정! 30년 경험의 신용과 책임!**

작은 일에도 책임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ORION CABINET & TILE**

최고급 캐비닛 & 유로피안/퀵츠/그라나잇/타일/우드/방수라미네이트 홈세일



**공장직영**

50,000 sq.ft.  
초대형 창고/쇼룸

커스텀 캐비닛  
커스텀 카운터탑

모든 시티  
인-허가 공사  
설계/시공/인테리어

부엌/화장실 스페셜  
리모델링 전문

전기/플러밍/드라이월/  
페인팅 모든 공사 책임 시공

**오리온캐비닛/타일**

www.orientile.com 주 정부 면허 및 보험

\*상담 후 쇼룸을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하고 만족할 선택을 약속드립니다

상담문의/ 방문시 예약 **714.858.3000**

Showroom & Warehouse 900 E. Vermont Ave, Anaheim, CA 92805

